

## 오층탑(아스카 시대 국보)

호류지 절의 오층탑은 비슷한 종류의 탑으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현존하는 목조 오층탑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탑 중 하나입니다. 이 탑은 석가모니의 사리(유골이나 화장재)를 보관하기 위해 아스카 시대(593~710년)에 건립되었습니다. 석가모니의 사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,500년 전 석가모니가 사망한 후에 신자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. 사리의 일부는 현재, 탑의 기단 아래 3m 정도 되는 곳에 모셔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탑의 초층에는 석가모니의 생애를 네 장면으로 나타낸 소상군이 안치되어 있습니다. 북쪽에는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어설 때의 광경이 묘사되어 있는데, 제자들이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.

탑은 기단에서부터 높이가 약 32.5m이며, 중심 기둥인 심주는 594년에 별목한 편백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. 심주는 탑의 다섯 층을 모두 가로지르고 있는데, 이는 나무를 짜 맞춤으로써 유연성을 확보해 일본에서 자주 일어나는 지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구조입니다.

호류지 절의 '7대 불가사의' 중 하나로 꼽히는 이 탑의 특징은 맨 꼭대기 지붕 위에 서 있는 상륜이라 불리는 장식부에 걸린 커다란 낫입니다. 과거에 천둥은 천계의 마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탑에 예리한 날을 가진 칼 등을 설치하여 천계의 마물이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고 전해집니다. 탑은 가마쿠라 시대(1185~1333년)에 낙뢰를 맞아 불길에 치솟기도 했지만, 크게 손상되지는 않았습니다. 후에는 이후의 낙뢰로부터 탑을 지키기 위해 각 층에 피뢰 부적을 걸기도 했습니다. 현재는 피뢰침이 건물을 지키고 있습니다.